

#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A Bibliometric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ers' Study  
on *Nogeoldae* and their Use of Editions

韓美鏡 (Han, Mi-Kyung)\*

## ◁ 목 차 ▷

- |                          |                        |
|--------------------------|------------------------|
| 1. 서 언                   | 5. 「노걸대」 판본활용의 문헌단위 분석 |
| 2. 데이터의 수집과 선별           |                        |
| 3. 학술지의 분석               | 6. 결 언                 |
| 4.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지적구조의 분석 | <참고문헌>                 |

## < 초 록 >

『노걸대』는 오랜기간 중국어 교재이자 회화학습서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와 판본활용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내학술지논문 중 검색어 ‘노걸대’로 제공되는 KCI 등재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군집집단지적구조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와 연구자의 2개 기준을, 문헌단위 분석을 위하여 서지적 기술과 연구대상판본 분석의 2개 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정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 서지적 연구의 필요성 인식이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분석 결과 대체로 중어중문 관련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전공 분석 결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 분야 학술지였다. 2000년대에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1998년에 월간이 발견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자 분석 결과 52명의 연구자 중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대다수였다. 대부분 4-50대 교수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었으며, 소수의 국내연구자에 의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3) 연구대상판본활용 분석 결과 78편의 논문 대부분은 서지사항과 간행사항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 10% 미만의 논문만이 연구대상 판본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부분 1종의 판본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대상판본 분석 결과 『노걸대연해』와 『번역노걸대』 두 판본을 주 연구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要語: 계량서지학, 계량분석, 『노걸대』, 연구동향, 연구자 특성, 지적구조, 판본, 판본활용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12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Nogeoldae* was Chinese teaching materials and Chinese conversation study material for a long time. This study targeted at articles registered with KCI, which are browsed by the key word “*Nogeoldae*”, among domestic academic articles provided by RISS of KERIS in order to analyze the trend of domestic researchers’ use of editions in their study on *Nogeoldae*. To analyze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grouped studies, two standards of academic journals and researchers were applied. To conduct analysis on literature level, two standards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and editions analysis were used. This analysis raised the necessity to conduct bibliographical study in case of research targeted at specific literatures. The detailed contents a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sis of academic journals, a number of articles are generally being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related academic area.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most of the researchers majored in the areas of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biggest number of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2000s and it seems that lots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since 1998 when original publication was discovered.

2) The analysis of researchers shows that most of 52 researchers are from areas of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ose researches were being conducted mostly by the professors in their 40-50s and a small number of domestic researchers were conducting researches persistently.

3) Editions of study objects analysis shows that most of 78 articles were without description of bibliographical details and publication related situation. Not more than 10% of articles include anyasis of editions and the first type editions were mostly used for research purpose. The analysis of editions of study object shows that two editions of *Nogeoldae Enhae* and *Bunyok Nogeoldae* are being used as major object of studies.

Key words: Bibliometrics, Quantitative Analysis, *Nogeoldae*, Research Trends, Research Attribute, Intellectual Structure, Editions, Use of Editions

## 1. 서 언

###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역관(譯官) 양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관하여 관리 감독하여 왔다.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신라 때에 교육기관의 하나인 왜전(倭典)이 이미 설치 되었으며, 전문인력으로 한어(漢語)를 관장하는 상문사(詳文師)를 두었다.<sup>1)</sup>

「노걸대」는 우리나라 중국어 학습의 주요 교재이자 회화책으로 고려후기에 설치된 통문관(通文館)과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서 역관 양성을 위한 한어 교재로 사용되어왔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인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행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중국어 표현과 일반 지식들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상에는 흔히 구분 없이 ‘노걸대’로만 언급되어 있으나 현존본은 크게 한문본과 언해본 또는 번역본으로 구분된다. 한문본으로는 「고본노걸대(古本老乞大)」와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이 있고, 언해본 또는 번역본으로는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등이 있다. 그중 「고본노걸대」는 원대에 간행된 것으로 ‘원본(原本, 元本)’, ‘구간(舊刊)’, ‘원노(原老)’ 등으로도 불리 우며, 「노걸대신석」은 18세기에 당시 실정에 맞춰서 펴낸 것이다. 「노걸대언해」는 조선 중종년간(1488-1544)에 최세진(崔世珍)이 언해하였으며 그 후 번역본도 등장한 것으로 이 둘은 다른 판본으로 연구되기도 하고 일부 문자체의 차이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한다.<sup>2)</sup> 한편,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와 「신석노걸대언해

1) 왜전과 상문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卷第) 39 잡지(雜志) 제팔(第八) 직관(職官) 중(中) 조에 보이며, 상문사는 신라 때 외교문서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이다.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호(2004), 124-5, 주 1)과 4).

2) 일부 연구자는 내용 중 일부 문자체만 다르다고 하고(蘇恩希, “古本「老乞大」中的選擇問

(新釋老乞大諺解)』는 「노걸대신석」의 저자가 같은 시기에 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몽고어(蒙語), 일본어(倭語) 및 만주어(淸語)로도 번역 간행되었다.

이 연구는 「노걸대」를 대상으로 연구함에 국내 연구자의 연구동향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의 선행연구로 문헌정보학 연구분야 전체에 대한 조사 분석 외에 각 분야별로 자료조직분야, 기록관리학 분야, 서지학분야 연구에 대한 개괄적 연구경향이 이루어졌다.<sup>3)</sup> 최근에는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분야의 연구경향이 분석되고 있다.<sup>4)</sup> 이 연구는 국내 연구자의 특정 옛 문헌에 대한 연구와 관련 및 연구대상판본활용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에 대한 연구동향과 판본활용 동향을 파악하고, 서지적 연구 선행의 필요성과 중요함 인식 제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국내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을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句, 『中國語文論叢』 26호(2004), 25-6)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판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宋基中,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一), 『國語學』 14호(1985), 115-147.; 안병희,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인문논총』 35(1996), 1-20.;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호(2004), 123-171.; 鄭在永, “譯學書 자료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7호(2000), 301-338.; 홍윤표, 정광 외, “사역원 한학서의 판본 연구(1): 老乞大, 朴通事의성립과 그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4호(2001), 283-332).

- 3) 이종욱, 양기덕, “문헌정보학 연구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권 4호(2011), 53-76.; 김정현, “한국의 자료조직분야 연구동향 분석: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권 3호(2011), 149-164.;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권 1호(2007), 345-372.; 강순애, “한국의 서지학 연구 경향, 『서지학연구』 14(1997), 1-21.

- 4) Park Myung-Kyu, Kim Heejung,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8 No.2(2011), 53-63.

첫째, 「노걸대」에 대한 개관적 기술과 선행연구 조사를 위해 역사연구법과 문헌연구법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논문과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수집을 위해 메타스터디(mete study), 인터넷조사법, 그리고 문헌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군집집단의 지적구조와 문헌단위별 분석을 위해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과 계량서지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범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연구의 기준과 변인을 사용하여 제한하였다.

첫째, 군집집단연구의 지적구조 분석을 위하여 학술지와 연구자의 2개 기준을 사용하였다. 학술지의 경우 1) 게재논문수, 2) 주제분야별 분류, 3) 연대별 게재 논문편수의 3개 변인을 사용하였고, 연구자의 경우 1) 전공별, 2) 연령대별, 3) 신분별, 4) 논문편수별 등의 4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둘째, 문헌단위별 판본활용 분석을 위하여 서지적 기술과 연구대상판본 분석의 2개 기준을 사용하였다. 서지적 기술의 경우 1) 서지사항 기술, 2) 간행사항 기술, 3) 관련판본의 기술, 4) 관련판본 분석여부의 4개 변인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판본 분석의 경우 1) 연구대상판본 활용종수, 2) 연구대상판본 분석의 2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범위를 바탕으로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군집집단 지적구조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문헌단위별 서지적 기술과 판본활용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데이터의 수집과 선별

국내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과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수집 및 선별하였다.

## 2.1 논문의 수집과 선별

논문 수집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의 국내학술논문부분에서 ‘노걸대’를 검색어로 탐색을 실행하였다. 총 18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수집 및 선별과정을 통해 81편을 선별하였다.

1) KCI 등재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등재후보지와 일반논문류의 경우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KCI 등재는 2005년부터 이루어지고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등재지로 선정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으므로 2012년 현재 등재지인 경우 이전 시기에 동일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는 포함하였다.

2) 중복적으로 학술정보연구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논문은 제거하였으며, 연속 논문의 경우 하나의 논문으로 처리하였다.

3) 서평, 역주, 해제 등의 논문의 성격에서 벗어나면서 학술정보연구서비스에서 논문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제거하였다.

4) 연구자가 논문의 키워드 등으로 설정하였거나 내용관련이 없는 논문류는 다음과 같이 원문을 확인하여 제거하였다.

5) 중국연구자로서 국내 KCI 등재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어 수집된 경우 연구범위가 아니므로 제거하였다.

한편, 원문의 조사는 학술정보연구서비스에 탑재되어 있는 원문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학술정보연구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정보의 학술데이터 검색 사이트 KISS, 누리미디어의 DBpia, 포털사이트 naver 전문정보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상을 통해 원문이 제공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제거하였다. 그 결과 105편의 논문과 논문이 수록된 총 36종의 학술지를 선별하였다.

## 2.2 연구자와 연구자 정보의 수집과 선별

학술정보연구서비스 국내학술지논문으로 선별된 KCI 등재 논문 105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총 52명의 연구자를 선별하였다.

##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1) 기본적으로 저자 중 여러 편의 논문을 써서 중복 등장한 39명을 우선 제외한 단독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3인 저자와 2인 저자의 논문이 각 3편과 2편씩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각 단독저자로 포함하였다.

3) 논문 선별의 경우처럼 중복논문의 경우, 연속 논문의 경우, 그리고 서평, 역주, 해제 등의 논문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논문의 경우 내용만 관련되는 논문류, 중국연구자의 경우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

4) 중국인연구자는 연구범위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5)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의 연구자검색과 해당 논문상의 저자사항 부분을 참조하였으며, 두 경우 조사 후에도 최종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연구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1)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의 연구자검색을 통하여 생년, 소속기관(소속 대학),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하였다. 다만 이 경우 연구자 본인의 정보갱신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

2)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비공개상태거나 등록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논문상의 신분제공을 참고하였다. 이 경우 소속기관(즉, 대학)과 직위 및 전공만이 확인 가능하였으며, 연령대 검색은 불가하여 이후 연령대 분석에서만 제외하였다.

3) 이상의 두 경우 모두를 통해서도 검색이 안되는 경우 naver 인물검색에서 검색하고, 최종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연구자는 제거하였다.

### 3. 학술지의 분석

수집 선별된 학술지 36종을 대상으로 1) 게재논문수, 2) 주제분야별 분류, 3) 연대별 게재 논문편수의 3개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1 학술지 게재논문수의 분석

다음 <표 1>에 의하면 『중국학연구(中國學研究)』에 실린 논문은 9편으로 이는 최다의 경우이다. 그 외 『중국어문학』과 『중국언어연구』에 각 7편, 『중국어문논총(中國語文論叢)』과 『중국연구(中國研究)』에 각 6편, 『한말연구』에 4편, 『중국문학(中國文學)』, 『진단학보』, 『한국어학』에 각 3편씩 실려 있다. 이를 통하여 대체로 중어중문관련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어국문관련 학술지의 경우 대부분 1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학술지 게재논문수

편수	해당학술지명	비고
9편	中國學研究	1종
7편	중국어문학, 중국언어연구	2종
6편	中國語文論叢, 中國研究	2종
4편	한말연구	1종
3편	中國文學, 진단학보, 한국어학	3종
2편	국어국문학,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服飾文化研究, 語文研究, 이중언어학, 人文論叢, 중국어문학논집, 中語中文學, 韓民族語文學	9종
1편	국어교육, 문학과 언어, 語文學, 語學研究, 언어과학연구, 언어학, 우리말글, 우리어문연구, 中國人文科學, 中國學論叢, 中國學報, 지역과 역사, 韓國文化,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언어문학, 한중인문학연구 등	18종

### 3.2 주제분야별 분류의 분석

학술지를 주제별 즉 전공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국어국문학 분야의 학술지가 15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어중문학 분야가 12종이며, 국어와 중국어 연구와 모두 관련되는 언어학 분야는 4종의 학술지가 있다. 한편 인문학, 식품학, 의류학, 역사학, 한국학 분야의 학술지의 경우 관련분야의 용어 연구나 관련내용을 『노걸대』를 근거로 연구하고 있는 논문류가 대부분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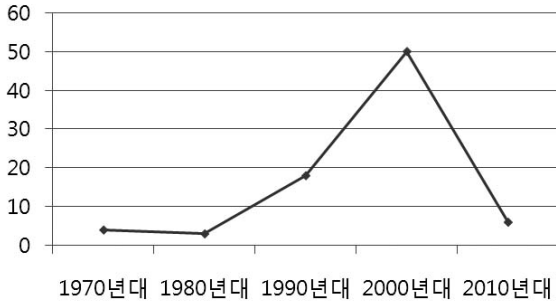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표 2> 학술지 주제분야별 분류

주제분야	해당학술지	비고
국어국문학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국어학, 문학과 언어, 언어과학연구, 언어학, 우리말 글, 우리어문연구, 韓國文化,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어학, 한국언어문학, 한말연구, 韓民族語文學	15종
언어학	語文研究, 語文學, 語學研究, 이중언어학	4종 국어, 중국어 모두 포함가능
중어중문학	中國文學, 中國語文論叢, 중국어문학,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언어연구, 中國研究, 中國人文科學, 中國學論叢, 中國學報, 中國學研究, 中語中文學, 한중언어문학연구	12종
그외	인문학: 人文論叢 식품학: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의류학: 服飾文化研究 역사학: 지역과 역사 한국학: 진단학보	5종

### 3.3 연대별 게재 논문편수의 분석

학술지에 실린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학술지 게재 논문편수를 연대별로 조사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오다가 1990년대부터 연구량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50편에 이르는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를 전후로 보면 이전에는 30년에 걸쳐 25편이 연구되었던 반면 이후 12년 동안 56편이 연구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998년 「원본노걸대(原本老乞大)」 즉 구간이 발견되면서 여러 학계 연구자들에 의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에는 10편,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7편과 6편이 저술되었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6편이 저술되었고 이후에도 「노걸대」의 학술적 가치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그림 1> 연대별 논문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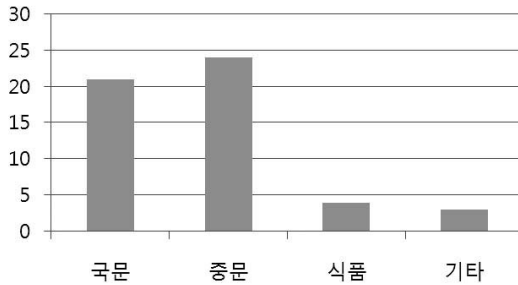
#### 4.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지적구조의 분석

국내 「노걸대」 연구자의 지적구조는 1) 전공별, 2) 연령대별, 3) 신분별, 그리고 4) 논문편수별의 4개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 4.1 전공별 분석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전공을 분석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국어국문학 21명, 중어중문학 24명, 식품영양학 4명이 있으며, 그 외 문헌정보학(서지학)과 의류학, 사학 전공자도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어국문학 전공자와 중어중문학 전공자가 각각 전체 연구자 중 40.4%와 46.2%로, 국내연구자 중 「노걸대」는 대부분 이 두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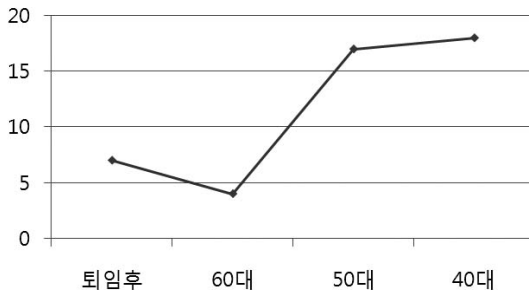
##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그림 2> 연구자의 전공

### 4.2 연령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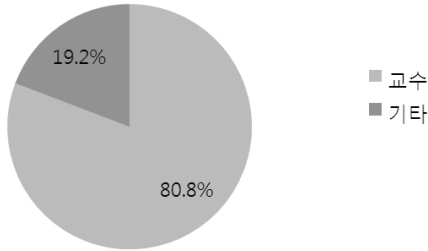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연령대를 분석하여 보면 <그림 3>과 같으며, 이는 실제 연구 연령이기보다는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만 65세 퇴임연령대가 7명, 60대가 4명, 50대가 17명, 그리고 40대가 18명이다. 그 외 30대가 1명 있으며, 2.2 연구자 정보 중 2) 부분에서 상술하였듯이 확인미상의 5명이 있다. 이는 4-50대가 각각 전체 연구자 중 34.6%와 32.7%로, 주로 연구되는 연구시기(3.3 참조)가 2000년대로 5세 정도 감하더라도 국내연구자 중 「노걸대」는 대부분 이들 4-50대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연구자의 연령대

### 4.3 신분별 분석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신분을 분석하여 보면 <그림 4>와 같다. 즉,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42명으로 80.8%이며, 그 외의 연구자는 시간강사, 연구교수, 연구원 등이다. 한편, 석사학위과정생도 2명 있으며, 이들은 단독저자가 아닌 2인 저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내연구자 중 『노걸대』는 대부분 교수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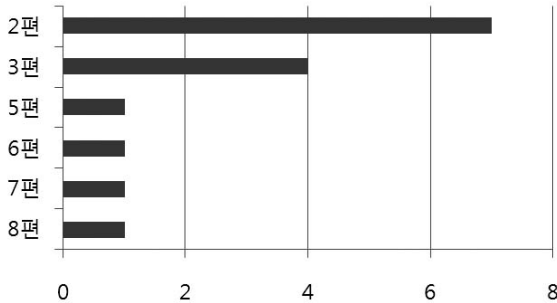


<그림 4> 연구자의 신분

### 4.4 논문편수별 분석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연구자별 논문편수를 분석하여 보면 <그림 5>와 같다. 가장 많은 논문을 쓴 연구자의 논문편수는 8편이며 그 외 3명이 각각 5-7편을 썼다. 이는 4명의 연구자가 총 26편을 저술하여 3편과 2편씩 쓴 10명의 연구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 외에는 모두 1편씩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이는 국내 연구자 중 소수의 몇 명에 의하여 『노걸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연구자의 「노결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그림 5> 연구자의 논문편수

### 5. 「노결대」 판본활용의 문헌단위 분석

185편의 논문은 최종적으로 81편이 선별되었고 원문을 대상으로 문헌단위 분석을 진행하면서 일부 판본활용이 불분명한 한 3편을 제외하고 78편을 대상으로 서지적 기술과 연구대상 판본의 2개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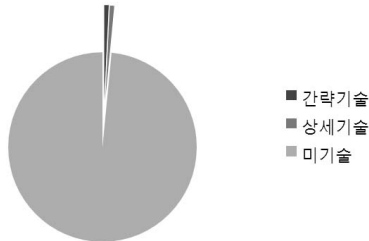
#### 5.1 서지적 기술의 분석

논문의 원문을 대상으로 서지적 기술부분은 1) 서지사항 기술, 2) 간행사항의 기술, 그리고 3) 관련판본 분석여부의 3개 변인으로 분석하였다(<부록> 참조). 그중 서지사항과 간행사항의 기술부분은 간략기술과 상세기술로 분류하였으며, 서지사항과 관련하여 주기 방식으로 관련 논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논문의 경우 서지사항의 간략기술에 포함하였다. 관련판본 분석여부의 경우 설명 형식으로 해설만 하고 있는 경우와 실제 형태적 또는 원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하였다.

### 5.1.1 서지사항의 기술

이 부분은 저자, 서명, 형태 및 서지관련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일부 논문의 경우 본문에는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주기하고 있다면 간략기술로 포함하였다.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서지사항 기술부분은 크게 간략기술과 상세기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 6편씩(각각 전체논문의 0.76% 씩)으로 전체논문의 1.5%만이 서지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서지사항의 간략기술의 4편 즉 ⅔가 전술하였듯이 주기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주로 『노걸대』 연구자의 전공 배경이 인문분야임에도 대부분의 연구자가 서지사항 기술은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서지사항의 기술

### 5.1.2 간행사항의 기술

이 부분은 『노걸대』의 연구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간행사항과 관련 간행사항을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이 경우 또한 일부 논문의 경우 본문에는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논문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간행사항을 주기하고 있다면 간략기술로 포함하였다.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간행사항 기술부분은 크게 간략기술과 상세기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 11편씩(각각 전체논문의 13.9%씩)으로 전체논문의 27.8%

##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정도로 약 1/3만이 간행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이 또한 주로 「노걸대」 연구자의 전공 배경이 인문분야임에도 간행사항 기술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노걸대」의 간행에 대한 부분이 다소 복잡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필요함을 느끼나 연구내용 위주로 논문이 저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지사항 기술보다는 많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문헌이기 때문에 간행에 대한 기술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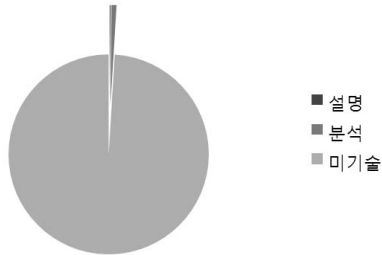
<그림 7> 간행사항의 기술

### 5.1.3 관련판본의 분석여부

「노걸대」는 원본부터 인쇄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판본이 있다. 이부분은 연구 수행시 관련판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나 분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관련판본 분석은 크게 설명 또는 해설과 상세한 분석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명의 경우는 1편(전체논문의 0.13%)이 있으며, 분석의 경우는 6편(전체논문의 0.76%)으로 전체논문의 0.89% 정도로 10편 중 1편 미만이 관련판본에 대하여 설명 또는 분석하고 있다(<그림 8> 참조). 참고로 판본을 분석하고 있는 6편의 경우 판본 연구자가 아님에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판본의 분석은 연구의 한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노걸대」 연구자는 전공 관련 연구내용을 주 대상으로 연구하며 판본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판본의 분석은

서지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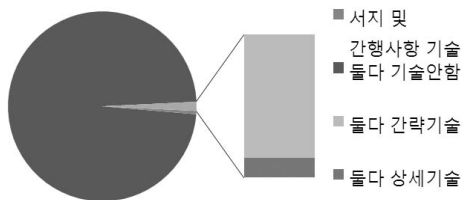


<그림 8> 관련판본의 분석

#### 5.1.4 서지사항과 간행사항의 기술

이 부분은 「노걸대」의 연구와 관련하여 서지사항과 간행사항 두 부분을 모두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두 부분의 간략 및 상세기술을 모두 포함하였다.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서지와 간행사항 두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든 상세하게든 기술하고 있는 논문은 29편(전체논문의 36.7%)이며, 이들 중 서지사항과 간행사항을 모두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논문은 전체 29편의 논문 중 4편으로 13.8% 정도이다(<그림 9> 참조). 이는 국내 「노걸대」 연구자의 1/3 이상은 내용 전개를 의하여 배경이 되는 서지사항이든 간행사항이든 둘 중 하나는 기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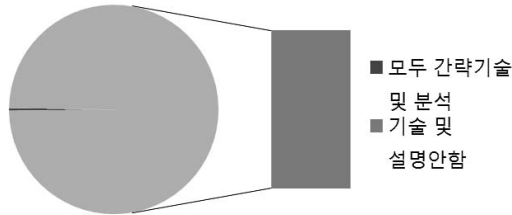


<그림 9> 서지사항과 간행사항의 기술

### 5.1.5 서지사항과 간행사항 및 관련판본의 분석여부

이 부분은 「노걸대」의 연구와 관련하여 서지사항과 간행사항 두 부분을 모두 기술하고 있으면서 관련판본에 대하여 분석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세 부분의 간략 및 상세기술 또는 분석을 모두 포함하였다.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서지사항과 간행사항 및 관련판본의 분석 세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든 상세하게든 기술 및 분석하고 있는 논문은 3편(전체논문의 0.38%)이며, 모두 세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및 분석하고 있다. 이들 3편 논문 연구자의 대부분은 국어국문과 중어중문 전공자로 언어적 또는 문법적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노걸대」의 간행과 판본은 연구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에서 중요한 서지적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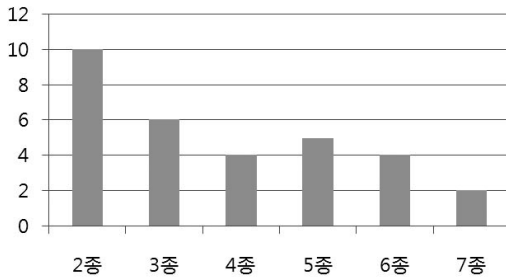
<그림 10> 서지사항과 간행사항 기술 및 관련판본의 분석여부

## 5.2 연구대상판본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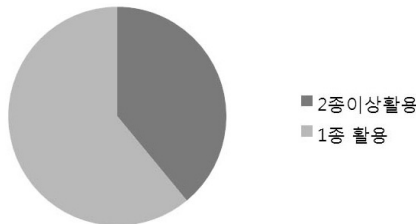
국내연구자의 「노걸대」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판본 분석여부를 대상으로 1) 연구대상판본 활용종수, 2) 연구대상판본 분석여부의 2개 변인을 분석하였다 (<부록> 참조).

### 5.2.1 연구대상판본 활용종수

「노걸대」 연구자의 논문으로 최종 선별된 81편중 대상판본 기술이 불명확한 3편을 제외하고 총 79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하여 활용한 판본의 종수는 157편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그중 5편의 논문은 규장각총서 등의 영인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평균 한편의 논문 당 대략 1.99편 즉 2편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에 대한 편차는 많으며, 실제 활용대상 판본의 종수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즉 2종의 판본을 활용한 논문은 10편, 3종 활용은 6편, 4종 활용은 4편, 5종 활용은 5편, 6종 활용은 4편, 그리고 최대의 경우로 7종 활용은 2편으로 이 경우 동일 연구자이다. 다시말해 <그림 12>와 같이 2종 이상의 판본을 활용한 연구자는 전체 논문으로 보았을 때 총 31편(39%)이며, 이외에는 대부분의 1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대상판본의 활용종수



<그림 12> 연구대상판본의 2종 이상 논문의 활용

일부 저자의 경우 다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비교의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부록>에 의하면 경우 반드시 연구대상판본에 대한 판본 분석을 선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5종 이상 판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을 살펴 보면, 그중 6종을 활용한 1편의 논문만이 간행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다종의 판본활용이 곧 상세한 판본분석 수행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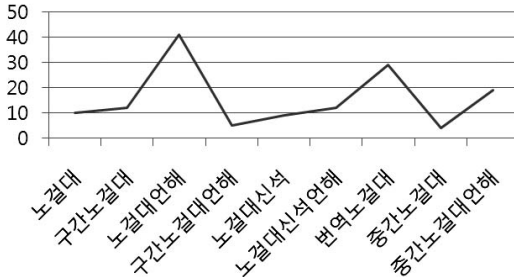
### 5.2.2 연구대상판본의 분석

총 157편으로 조사된 연구대상 「노걸대」 판본은 같은 서명으로 정리하면 일부 불확실한 서명을 사용한 판본을 제외하면 총 15종이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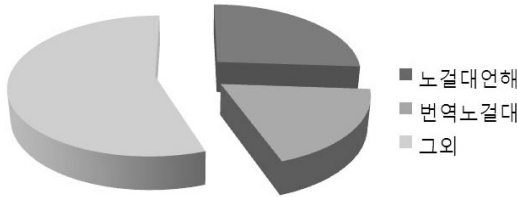
<그림 13>과 <그림 14>에 의하면 15종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판본은 「노걸대 언해」로 최대 41편(전체의 26.1%)의 논문에서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번역노걸대」가 29편(전체의 18.5%)의 논문에서 활용하여 두 판본의 경우 70편의 논문에서 활용하여 전체 44.6%를 차지한다. 한편, 영인본도 5종 중 3종도 「노걸대언해」, 1종이 「번역노걸대」이며, 이는 우리나라 「노걸대」 연구자의 대부분은 이 두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언해본과 번역본으로 불리우는 이 두 판본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글자체만 조금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것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다른 판본으로 구분하여 언어학적이거나 문법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여 자세한 서지적 고찰이 요구된다.

5) 「가정본노걸대(嘉靖本老乞大)」, 「고본노걸대(古本老乞大)」(舊本老乞大, 舊刊老乞大 原本老乞大), 「구간노걸대언해(舊刊老乞大新釋)」, 「노걸대(老乞大)」,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譯解)」, 「노걸대언해(老乞大譯解)」, 「노걸대집람(老乞大集覽)」, 「노박집람(老朴集覽)」,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산개본(刪改本)」,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譯解)」로 특히 「노걸대」의 경우 일부 논문에서 「노걸대」로만 명명되어 다른 판본과 이명동서일 여지가 있다.



<그림 13> 연구대상판본의 종류



<그림 14> 연구대상판본 중 최다활용 판본

## 6. 결 언

우리나라 재래의 중국어 학습 회화책이자 역관 양성기관인 사역원의 한어 교재였던 『노걸대』에 대한 국내연구자의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하여 연구동향을 살폈다.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의 국내학술논문으로 ‘노걸대’로 검색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군집집단의 지적구조 및 문헌단위별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의 분석을 위하여 총 36종을 선별하였다. 『중국학연구(中國學研究)』에 최다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대체로 중어중문관련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전공별 학술지 분석 결과 국어국문학 분야의 학술지가 15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어중문학 분야였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편수를

연대별로 조사해보면 1990년대부터 연구량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1998년 「원본노걸대(原本老乞大)」가 발견되면서 각계 학계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걸대」 국내연구자의 지적구조 분석을 위하여 총 52명의 연구자가 선별되었다. 전공 분석 결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의 두 분야 연구자가 대다수였으며, 대부분 4-50대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교수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었으며, 소수의 몇 명에 의하여 「노걸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노걸대」 판본활용의 문헌단위 분석을 위하여 79편을 대상으로 서지적 기술과 연구대상판본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서지적 기술 분석 결과 「노걸대」 연구자의 전공 배경이 인문분야임에도 서지사항이나 간행사항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판본 분석여부의 경우 10% 미만인 설명 또는 분석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매우 상세하게 분석 기술하고 있음을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판본의 분석 결과 대부분 1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부 저자는 6-7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경우 반드시 대상 판본에 대한 판본 분석을 선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판본 분석여부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판본은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로 국내 「노걸대」 연구자의 대부분은 이 두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중국어 교재이자 회화책인 「노걸대」는 국어국문과 중어중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판본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서지사항이나 간행사항의 기술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관련판본이나 연구대상판본에 대한 분석 또한 미비하다. 이는 특정 고전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시 서지적 연구와 판본분석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기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강순애. “한국의 서지학 연구 경향.” 『서지학연구』 14(1997). 1-21.

김정현. “한국의 자료조직분야 연구동향 분석: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권 3호(2011). 149-164.

蘇恩希. “古本『老乞木』中的選擇問句.” 『中國語文論叢』 26호(2004). 25-44.

宋基中. “『經國大典』에 보이는 譯學書 書名에 대하여(一).” 『國語學』 14호(1985). 115-147.

안병희.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인문논총』 35(1996). 1-20.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권 1호(2007). 345-372.

이종욱, 양기덕. “문헌정보학 연구분야에 대한 계량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권 4호(2011). 53-76.

정승혜. “司譯院 漢學書의 기초적 연구.” 『藏書閣』 3집(2000). 167-214.

鄭丞惠. “한국에서의 한어(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호(2004). 123-171.

鄭在永. “譯學書 자료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7호(2000). 301-338.

홍윤표, 정광 외. “사역원 한학서의 판본 연구(1): 老乞大, 朴通事의 성립과 그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4호(2001). 283-332.

누리미디어 DBpia. <<http://www.dbpia.c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http://www.kri.go.kr/kri/rp/main.jsp>>.

한국학술정보 학술데이터 검색사이트 KISS. <<http://kiss.kstudy.com>>.

naver 인물검색. <<http://people.search.naver.com>>.

naver 전문정보. <<http://academic.naver.com>>.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Park Myung-Kyu, Kim Heejung.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Informa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8 No.2(2011). 53-63.

<부록> 문헌단위 판본활용 분석표

	서지사항		간행사항		대상판본	판본분석		비고
	간략	상세	간략	상세		해설	분석	
1					飜譯老乞大 1512			
	○				16세기초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飜譯老乞大			
5			○		古本老乞大, 老乞大諺解(飜譯老乞大),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			
	○				古本老乞大			서지사항-주기
	○				老乞大			서지사항-주기
					飜譯大諺解 1510경, 老乞大諺解 1670, 평양감영 老乞大諺解 1745, 老乞大新釋諺解 1761, 重刊老乞大諺解 1795			
					老乞大			
10			○		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諺解			
					飜譯老乞大, 老乞大諺解 +기영관老乞大諺解, 重刊老乞大諺解			비교
					飜譯老乞大 1510, 老乞大諺解 1670, 舊刊老乞大諺解 1745, 老乞大新釋諺解 1763, 重刊老乞大諺解 1795			중국어논문
			○		평양감영중간보 1745 - 규장각총서 영인본			영인본
					4중, 嘉靖本老乞大(1522-1566)			
15					老乞大諺解 1517 이전, 老乞大諺解 1670,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1745 서), 老乞大新釋諺解 1763, 重刊老乞大諺解 1795 이후			
			○		老乞大			
			○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 14C, 新譯老乞大 1517 이전, 老乞大諺解 1670,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1745), 老乞大新釋諺解 1761 서, 重刊老乞大諺解 1795 이후			
			○		老乞大新釋諺解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서지사항		간행사항		대상판본	판본분석		비고
	간략	상세	간략	상세		해설	분석	
20					老乞大諺解 1745 평양감영본 - 규장각총서영인본			영인본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舊刊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老乞大新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老乞大, 언해서		○	영인본
			○		老乞大, 老乞大諺解			
					翻譯老乞大			
25					翻譯老乞大(최세진)	○		
					原本老乞大, 翻譯老乞大,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諺解			
					元本老乞大 1346경, 翻譯老乞大 1515경, 老乞大新釋諺解1763, 重刊老乞大諺解 1795			
					舊刊老乞大 14C, 翻譯老乞大 1517 이전, 老乞大諺解 1670,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1745 서, 老乞大新釋, 1761 서, 老乞大新釋諺解 1763, 重刊老乞大諺解 1795 이후			
			○		老乞大諺解上下, 老乞大新釋			
30			○		老乞大諺解,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諺解			
					16세기 翻譯老乞大, 17세기 老乞大諺解, 18세기 重刊老乞大諺解			
					翻譯老乞大, 重刊老乞大			
	○				老乞大14-15C,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 1700			서지사항-주기
					舊刊老乞大 14C, 翻譯老乞大 1517 이전, 老乞大諺解 1670, 老乞大諺解(평양감영중간본) 1745 서, 老乞大新釋, 1761 서, 重刊老乞大諺解 1795 이후			
35					翻譯老乞大 대제각 1973, 老乞大諺解 - 규장각총서 1944, 重刊老乞大諺解 홍문각 1984			영인본
					老乞大朴通事諺解 - 규장각총서9 경성제국대 학법문학부출판			

	서지사항		간행사항		대상판본	판본분석		비고
	간략	상세	간략	상세		해설	분석	
					翻譯老乞大 1510, 老乞大諺解 1670, 평양감영중간 老乞大諺解 1745, 淸語老乞大 1765, 蒙語老乞大 1790, 重刊老乞大諺解 1795			
					老乞大集覽上下 - 규장각총서8(446호), 單子本+譯註翻譯老乞大(국사편찬위원회역주, 태학사, 1995)			
					翻譯老乞大 1510경, 老乞大諺解 1670, 舊刊老乞大諺解 1745, 老乞大新釋諺解 1763, 重刊老乞大諺解 1795			
40					老乞大, 老乞大諺解			
					= 39			
					= 39			
			○	○	老朴集覽		○	서지적특성, 구성, 상세간행과 저본 등
			○	○	老朴集覽		○	"
45				○	노걸대			중국어논문 상세편찬년대
					淸語老乞大			소장자료해제
			○		翻譯老乞大 1510경, 老乞大諺解 1670, 平壤監營老乞大諺解 1745, 老乞大新釋諺解 1763, 重刊老乞大諺解 1795, 淸語老乞大, 蒙語老乞大			
			○		번역본노걸대 1506 전후, 언해본노걸대 1670			
					최세진 翻譯老乞大			
50					노걸대언해본 - 규장각총서			영인본
					翻譯老乞大			
					16세기초 翻譯老乞大			
			○		翻譯老乞大		○	형태서지적
					翻譯老乞大(국어사자료연구회, 태학사, 1995)			영인본
55	○				翻譯老乞大			서지사항-주기
					翻譯老乞大			
					翻譯老乞大			

국내 연구자의 「노걸대」 연구 및 판본활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

	서지사항		간행사항		대상판본	판본분석		비고
	간략	상세	간략	상세		해설	분석	
					翻譯老乞大 1510, 重刊老乞大諺解 1795			
					翻譯老乞大 최세진			
60				○	翻譯老乞大			
					翻譯老乞大			
				○	嘉靖本老乞大+刪改本の復刻本		○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평양본老乞大諺解 1745, 老乞大諺解 1795			
					老乞大 원본			중국어논문
65				○	老乞大			
				○	老乞大			
		○			老乞大			역학서류로 언급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			규장각3종
					老乞大, 老乞大諺解			
70					번역본 15615, 언해본 1670			
		○		○	舊本老乞大		○	
		○		○	原本老乞大			
					老朴集覽 최세진			
					老乞大諺解 1670			참고문헌에서 언급
75				○	原本老乞大			
	○			○	淸語老乞大			
					原本老乞大			
					翻譯老乞大, 老乞大諺解			

